

地球와 人間



和達清夫 (前 日本學士院長)

◇ 略 歷 ◇

- 1902. 9. 8 東京出生
- 1925 東京大 理學部 物理學科卒
- 1925~46 中央氣象台技師
- 1947~56 中央氣象台長
- 1956~63 氣象廳長官
- 1960~63 日本學術會議會長
- 1966~72 埼玉大學長
- 1974~80 日本學士院長
- 1967~ 中央公害對策審議會會長
- 1967~ 海洋開發審議會會長

演士는 地球物理學 專門分野이므로 지구상에 여러 곳을 다니며 氣候, 風土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7년전 일본 남극관측대와 동행하여 남극의 일본기지에 간 일이 있었다. 그후 다른사람들이 본인에게 남극에 갔을때의 감상을 물으면 나는 첫째로 남극은 “눈”과 “어름”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세계에 감동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지구끝의 눈과 얼음의 세계는 아름답고 엄숙했다. 여기서 생각할 때 왜? 남극지역은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는 질문에서, 나는 원래 지구가 아름답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구를 아름답다고 왜?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들이 늘 보고 있는 지구상의 풍물에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많으나 적으나 자연에 손실이 생긴 탓으로 생각된다.

즉, 남극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손이 가지않은 순수한 자연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예로는,

우리가 사는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도 전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가면 풀이 무성하고, 곤충, 새, 짐승들이 뛰놀아 남극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된다.

남극에 가서 처음으로 지구의 아름다움을 인식한 연사는 현재의 지구는 인간 손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世間에서 알가알바논의되고 있는 環境問題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고 사려된다.

인간은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나 그 반면에 이와같은 환경변화를 초래하였다.

環境의 變化 - 두가지 例

현재 環境의 문제는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공업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심각하여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업화 사회는 명확히 우리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편리하고 풍요함을 주었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지구에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生成을 저해하고 오염시켰다.

이처럼 環境을 악화시키는 것은 일본과 같은 공업과밀지역에는 극단까지 진행되어 소위 「公害」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본에서 공해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연사는 地球物理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구상

에 일어나는 현상, 즉, 태풍이나 지진 또는 홍수같은 자연 현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 자연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건들이 人爲的 현상으로 점차 서로 혼합되어 진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공업발전과 아울러 현저하여 지고있다. 그러므로 여기 두가지 예를 들어 자연 현상과 인위적현상을 세상의 진보와 아울러 얼마만큼 상승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한가지는 大氣汚染에 대한 것과 또 한가지는 地盤沈下에 대한 것이다. 이 두가지 현상은 중요한 공해의 종류로 현재 그 대책을 신중히 취급하고 있다.

일본의 상징과 같은 부사산의 예를 들어보면 부사산은 동경서쪽 100km되는 곳에 있으며 옛날의 맑은 날씨에는 동경거리에서도 잘 보였으나 오늘날 동경근교에 공장이 많아 상징으로 부사산을

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공업이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생산 공장에서는 대기오염이 되는 매연을 분출함으로써 大氣가 심하게 오염된 결과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環境의 악화가 심화되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1967년에는 公害対策基本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同年에 環境廳이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결과로 요즘에는 百年前과 같지는 않지만 부사산을 더욱 잘 볼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는 지반침하에 대한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의 표면은 근소하지만 보통 1년에 1~2mm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각변동(Crustal Movement)이라고 말하며 지구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현상으로 특히, 요즘은 지진에 지에는 이런 현상이 최대의 장해 요인이다.

지반침하는 땅이 때때로 급속히 내려앉는 현상으로 앞서말한 지각변동과는 언뜻보아 비슷하나 본질적으로는 천연 다른 현상이다. 그 움직이는 범도 1년의 10-20mm에서 심할때는 100mm 이상 되어서 전자와는 꼭 달라 급속히 침하하는 현상이다. 땅이 이와같이 급속도로 침하되면 수년내에 침하량은 상당하여 질 것이므로 배수는 물론 여러 토목, 건축, 건조물에 큰 지장을 주어 특히 태풍에 따른 고조, 해일, 지의진랑 때에 침하지역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연사가 대기오염과 지반침하의 두가지 예를 든것은 공업의 융성이란 이면에는 각종의 환경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관계되는 환경의 악화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조급히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요망된다는 것을 진술하고 싶었던 것이다.

環境에 대하여

요즘을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말은 우리주위 대기에 가까운 범위이므로 먼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의 시초에는 환경이라는 것이 주로 자연환경이었다.

그러나 차츰 사람들은 자연에 대하여 인공적인 수단으로 집을 짓고, 불을 쓰고, 경지를 만들게 되었지만 역시 주가 되는것은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인공환경부문이 많아진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우리 인류의 시작을 100~200万年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장구한 기간동안 科學은 점차적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보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近代科學이 기초를 놓고 획기적으로 진보된 것은 과학사에서 말하고 있듯이, 科學革命이라고 하는 시대부터이다.

과학혁명 15~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선구자로 하여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論과 “베살리우스”의 人體構造에 관한 저서가 1543년에 발간되어 그때부터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등 위대한 학자가 뒤이어 배출되어 근대과학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근대과학의 발달과 잇따라 일어난 18세기의 産業革命, 그리

고 오늘날의 과학기술 혁명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놀라운 것으로 인류 100萬年の 역사중 겨우 5·6 백년간에 인류역사가 과학기술에 의하여 전연 달라진 감을 느끼게 된다.

오늘날 과학기술시대에 새로운 과학상의 발견 즉 과학화는 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으며 사회활동, 인간생활에도 이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활동의 강대화와 활동의 무대도 지구전체에 미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가 좁아졌다”라는 말에 당연성을 갖게한다. “지구가 좁아졌다”고 하는 생각은 물론 교통, 통신이 근대화되어 먼곳이라도 단시간에 갈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바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곧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도 실제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한가지 예로서 금년 5월에 미국의 태평양 해안의 워싱턴주에 소재한 샌드엔즈 화산이 분화를 뿜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부진 즉 화산재의 微粒은 높은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상에 퍼지게 되었다. 이 화산재의 영향으로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기후의 변화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금년 여름의 이상저온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곳곳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에서는 평년에 비해 2

3도의 낮은 온도를 기록해서 벼농사의 수확에 많은 감소를 가져 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샌드엔즈” 화산폭발에 있다는 기상학자도 있듯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있게되

리라고 본다.

연사는 이제까지 자연현상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환경 문제에 관해 물론 각국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환경문제는 자국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구적 규모로 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을 자연 환경과 인공환경과의 두분야로 생각하여 왔다. 물론 근래에는 특히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오히려 인간환경의 방향이 우세하게 된 감이 있다. 이와같은 상태를 볼때 인간환경이란 말을 새로 써서 인간의 주위를 자연과 인공의 여러물질의 기능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환경을 지구적 규모로 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하튼 지구상에 발생하는 자연현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스웨덴에서 열린 “UN인간환경회의”는 다분히 자연환경적인 면이 많았다고 평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 언급한 스웨덴 환경회의 이후 “UN세계인구회의” “세계식량회의”, “UN인간거주회의”, “UN소회의”, “UN사막화 방지회의”, “세계기후회의” 등 열대림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중요한 문제를 추출하여 국제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금년 7월말에 미국정부는 「2000년의 지구-21세기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관한 보고를 발표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본문제에 관하여 대통령특별위원회(President’s Task Force)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분야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빨리 보고하면, 그에 따라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미국은 지구 규모적 환경문제에 관하여 좀더 좋은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선두에 서서 진력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점에 관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최근 환경청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만들어 일본으로서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행, 국제협력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적 규모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가? 이점은 이미 前記한 보고서 등으로도 알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기술해 보겠다.

첫째는 세계의 인구다. 현재 약 44억이란 인구는 2000년에는 60억이 되리라 추정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근본이 되는 중요 문제는 人口인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다.

이제 물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 이미 각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多雨國에서도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후 세계적인 인구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관개용수의 증가로 물의 수요는 증가일로에 있다. 그런데 삼림의 벌채로 물의

공급은 심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 라면 2000년에는 1인당 물의 공급량은 30%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일찌기 바다는 넓고 무한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육지로 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연안해역에서는 수질 오염이 심각하며 해상 수층의 증가로 유류에 의한 오염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내륙의 湖沼나 하천의 물도 오염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성강우로 인해 물의 산성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물뿐 아니라 대기의 오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대기오염에 있어서 태도시, 공업도시등이 특히 심각하지만 관계자들의 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지구대기중 탄산가스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는 태양열을 받아 끊임없이 유동시켜 그 열을 허공에 반사하여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열평형은 지구상을 뱀도는 대기의 흐름과 관계되어 참으로 복잡미묘하다.

그런데 근래와서는 인간활동의 결과에 따라 대기중의 형형색색의 물질에 열이 흡수되는 까닭에 이 열평형도 깨지고 있다 하겠다.

인간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논하기전 산화물질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 들어와 대기오염을 일으켜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태도시나 공업도시등에서 일어나는 지역적인 것이므로 지구규모의 오염문제로서 보다는 다른각도에서 논해져야

할 점이다. 인간활동에 의한 대기오염으로는 에너지 소비에 의한 열오염과 화석연료의 소비등으로 인한 탄산가스 농도의 두 종류가 있다.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의 증가는 마치 온실의 초차(유리)와 같은 작용으로 소위 온실효과에 따라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

이와같은 인간활동은 직접, 간접으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소비에너지는 석탄환산으로 년70억 톤 가량이 되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1/20,000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지구의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위를 좁게 한정된 장소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소비 에너지는 약 4억 톤으로 이는 태양에너지의 0.3% 정도에 해당된다.

이것이 과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증가하여 1% 정도가 되어 기온은 1°C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계산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려해야 할 사태이다.

만일 그 범위를 더욱 좁게 잡아 동경도만 생각한다면 인공적으로 배출되는 열은 도시의 공기를 가열시켜 이미 동경도는 기온이 도심지에서는 2도 정도 상승하고 있다.

수십년전부터 이미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급격하여져서 각 계절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현저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전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관계로 열과 오염물질이 이 현상을 초래케 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습도가 변화하고 비, 눈, 안개의 회수나

그 양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현재로는 탄산가스의 대기중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수십년전에 비하면 지금은 대기중의 탄산가스는 15%나 증가하였고 2000년대까지는 23% 증가되어 21세기 중반에는 농도가 2배나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기중의 탄산가스는 온실작용을 한다. 전기한 바 있지만 지구 전체에 걸쳐 탄산가스의 농도가 배가되면 지구상에서는 기온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경도지역”에서 2-3°C, “양극가까운지역”은 10°C 가까이 상승한다고 기상학자는 추측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극지방의 氷雪은 용해되어 해면이 솟아올라 지구상의 해안저지대는 해수가 침입할 위험을 가지게 된다. 또 지구상의 대기흐름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 무서운 아열대 고기압대는 북상하여 사막과 건조지대의 위치가 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세계 농업이 일대 영향이 미칠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탄산가스 문제는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지만 장래의 지구규모적 환경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임으로 현재 기상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현재 에너지 제품의 분무제나 냉매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후레온가스”가 있다.

이 후레온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외기에 방출되어 장시간이 지나면 대기중에 확산되어 오존층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오존층을 파괴한다. 그 때문에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을 약화시

키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많은 생물에 유해하며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지구적 규모로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전부를 기술할 수는 없겠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환경의 악화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임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효과는 금방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로마클럽”의 보고가 유명하다. 첫번째 보고는 「成長의 限界」라고 제목하여 현재 사회의 추세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2000년 이후는 자원의 고갈, 식량부족, 오염증가에 의한 파국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제2의 보고는 「轉換機에선 人間社会」, 제3 보고는 「國際秩序의 再編成」, 제4 보고는 「浪費시대를 넘어서」이며 제5 보고는 「人類의 目標」로 각각 경청할 만한 결론이 나와 있다. 그것들에 관한 충분한 언급을 할 시간이 없으나 이 보고의 표제명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 클럽의 보고나 미국의 “2000년의 지구”의 보고에 의하면 인류의 미래도는 좀 암담하다고 하나 이것을 인류가 방지해서는 안될 때이다. 여하튼 지구상의 인간들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하여 근대과학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찰 및 결론

여기서 환경문제를 근본부터 생각해 보자.

이것은 우리들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자연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로 인간은 자연에서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자연과 일체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과 자연은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든가의 두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우리들은 서로 접하여 있음”이라고 생각하든가 “자연과 우리들은 서로 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음”이라 생각하는데 있다. 요컨대 인간은 생물의 하나이며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 생각하든가 자연은 인간과 대립한 “물질의 세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두가지는 어느 한 쪽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은 양자를 다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상으로 어느 한 쪽에 기울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방향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실제 물건을 판단할 때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다.

“인류가 자연중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 장소의 자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말할것도 없으며 이전에는 각 지역의 기후풍토에 의하여 그 곳의 사람들은 민족성, 혹은 국민성을 가진다는 학설이 나왔다. 일본의 와츠지 박사는 극동에 사는 사람의 민족성은 문슨 풍토의 영향을 받아 수용적,

인종적이라고 하고 유럽의 목장적, 건조풍토나 아프리카의 사막적, 극열한 것 등은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족성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하여튼 현재 기후풍토라고 하는 한 자연환경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 습관, 사고력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좋은 환경이란 것은 건강적인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건강적이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릴적부터 건강한 사고력과 가치관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릴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지구상에 자기의 예지에 따라 이상적인 환경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창조한다는 것은 결코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지구의 관리가 올바르게 되게끔 지구의 건강을 지키며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거기에서 풍요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실태를 연구하여 밝히고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잘 연구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에 관한 과학은 이후에도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데에만 쓰이게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지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앞뒤 없는 이야기를 말했지만 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은 가끔 지구상의 생물중의 하나라는 것을 망각하고 지구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어야 한다. 다음에 “인류의 진보는 자연(혹은 지구)의 정복이다”라는 인식이 과거에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상중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궁리하는 중에서 인류는 확실히 놀랄만한 문화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축해왔으나 역시 우리들의 과학은 아직 덜 발달하여 과학만능이 아니어서 겸허함을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물론 과학은 인류복지에 많은 공헌을 하여 오늘날 그 혜택중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여도 생물의 하나로서 살아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관이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지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금 인류는 스스로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하여튼 지구적 규모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구에는 여러가지 기후풍토의 지역이 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서로 인식하고 이해와 협력으로 지구상의 인류로서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평화롭고 풍요한 생활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